

통일위업실현의 앞길을 밝힌 정치대강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셨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투쟁방향을 제시해주셨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방침입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가장 정당한 민족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인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심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민족은 자주적립장에 톤튼히 서서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것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다는 사실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이다. 내외반동일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

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고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전제를 마련해나가는 정당한 예국투쟁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굳어져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누구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민족의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공평하게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의

통일원칙과 방도는 북과 남이 이미 합의한 민족공동의 대이며 고귀한 전취물물들이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향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월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민족의 앞길을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평한 평화를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자주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자주적이고 변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안아오야말것이다.

김광익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나가자 통일의 광장으로!》

4.19인민봉기후 남조선의 장면 《정권》은 《용공통일보다는 현재대로의 분단을 택하겠다》는 매국배족적인 언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인민들의 통일지향을 가로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러나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남조선의 각 대학단위로 《민족통일연맹》을 조직하였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의제와 사대내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자주통일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도 중단없이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1961년 5월 3일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은 대의원총회를 열고 남부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남북학생학술토론회, 남북학생친선체육대회 등을 가질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북학생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애국적발기는 8.15후 15년이상이나 극도를 갈라놓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할것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민족자주통일증약협의회》(《민자통》)는 5월 4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학생회담제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5월 13일 서울에서는 《민자통》의 주최에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민족자주통일추진대회》가 열렸다. 4만 5 000여명의 군중이 참가한 결기대회에서는 통일하려면 남북협상을 해야 하고 남북학생들이 관문점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어야 하며 의제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협상통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

왔다.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세차게 끓어번진 모임에서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는 남북학생회담뿐 아니라 남북정당, 사회단체도 조속한 시일내에 민족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의 만반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대회가 끝나자 수만명의 군중은 온 서울땅을 진감시키면서 시위행진을 벌여왔다.

시위자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배고파 못살겠다》, 《이 땅이 누 땅인데 오도고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나가자 통일의 광장으로!》, 《남북학생회담성취 만세!》, 《유엔군은 남북학생회담에 모든편의를 제공하라!》, 《남북학생회담을 조속히 실현할뿐더러 남북정치협상체제를 갖추자!》 등 구호를 부르며 베라를 뿌리면서 기세충천하여 행진하였다.

서울에서 타오른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민족자주통일추진을 위한 공동투쟁의 불길은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들에 퍼져 결기대회와 대중적인 시위들이 련속 벌어졌다.

대구에서는 5월 17일로 예정된 대규모적인 결기대회와 시위를 준비하기 위한 가두선진행진이 5월 15일에 벌어졌다. 행진대는 통일된 조국의 큰 지도도형과 어깨동무한 남북학생들과 동포형제들이 상봉하는 장면들을 형상한 인형가장물을 들고 《통일은 가까와온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모여라 판문점에서!》라는 구호가 인쇄된 베라를 뿌리며 수

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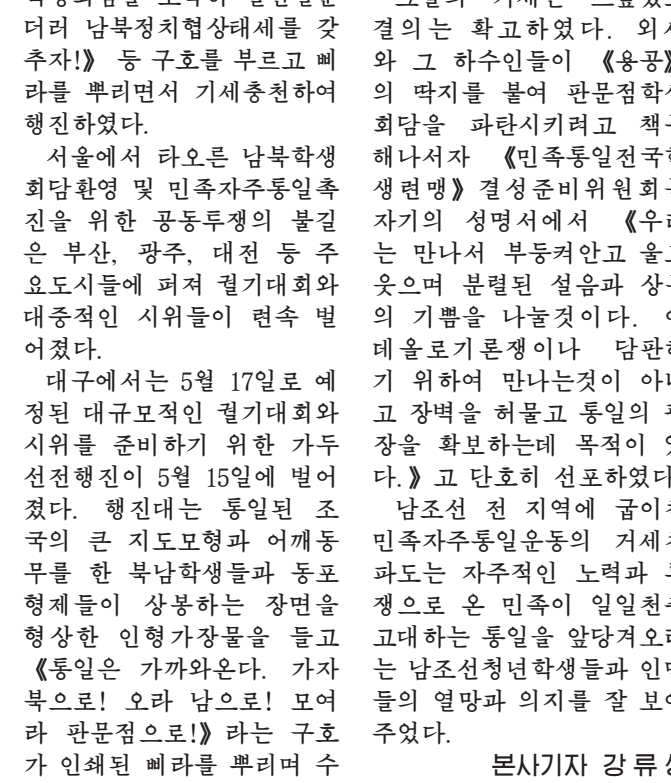
은 남조선땅은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열망적성원과 통일이 가까와온다는 부풀은 기대로 하여 드높은 감격의 파도로 설레었으며 곳곳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가두모금운동이 벌어지고 학생회담편으로 북남사이의 서신을 교환하기 위한 편지수집운동까지 진행되었다.

각계층 인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속에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에 참가할 지역별학생대표를 선정하는 등 준비를 다그쳤으며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결성대회를 준비하는 한편 5월 20일경 학생대표들이 청년학생들의 일대 시위행진속에 판문점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들의 기세는 드높았고 결의는 확고하였다. 의제와 그 하수인들이 《용공》의 딱지를 붙여 판문점학생회담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해나서자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결성준비위원회는 자기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만나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분열된 설움과 상봉의 기쁨을 나눌것이다. 이 데울로기론쟁이나 담판하기 위하여 만나는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광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단호히 선포하였다.

남조선 전 지역에 굵어진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거세찬 파도는 자주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온 민족이 일일천주교대하는 통일을 앞당겨주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본사기자 강무성



통일투쟁의 앞장에 선 남조선청년학생들

조국통일 3대헌장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적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혀 주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 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립하여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우리 겨레가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강국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에서 가장 공평하고 순조롭게 실현

《좋은 종자도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야 알찬 열매를 맺는다. 내가 미술가로서 성공했다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보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우리 민족의 위대한분을 스승으로 모시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름난 조선휘화가의 한사람이었던 김일성장군인, 인민예술가, 예술학박사였던 정창모가 생의 말년에 남긴 말이다.

정창모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이다.

그는 1931년 12월 가난한 로동자가정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정인성은 표구술에 능하였고 외할아버지 리평렬(호는 효산)은 전라도에서 이름을 날린 서예가, 문인화가였다.

그로서인지 정창모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애착을 가지고 제법 율방자를 틀고앉아 어른들의 그림시중을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기의 팔뚝보다 더 긴 붓을 들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며 제일 기뻐한것은 외할아버지였다. 어린 그에게서 미술가로서의 싹을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순간, 귀여운 외손자를 장차 이름난 미술가로 키우고싶었으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난을 밥먹듯 하며 살아가는 처지에서 《교과화가》의 앞날을 기약한다는것은 그림속의 떡이나 같았다.

날이 갈수록 어린 소년의 손에서 붓과 종이는 점점 멀어졌다.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정창모는 저도 모르게 끌려드는

미술의 세계에 빠져들고있었지만 또 다른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 시름하는 남녘동포들의 처지를 보며 미술가가 되려는 꿈을 부채쩍듯 하지 않았던 안이었다.

그는 리승만연도의 반인민적정정치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형의 영향을 받아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나날 정창모는 자기의 꿈을 지키려 할수록 온 제도가 없이는 설사 미술을 배워도 해도 진정한 미술가로서의 삶을 누릴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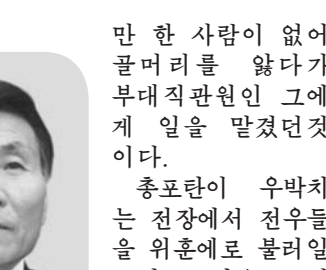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그는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고계시는 북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창모는 근로하는 인민이 정권의 주인이 되고 누구나 새 생활의 환희에 잠겨 생활하고있는 공화국을 몸시 동경하였다.

1950년 6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반공격하는 인민군대에 의해 전주가 해방되자 그는 제일먼저 인민군대에 찾아가 자기에게도 일을 맡겨달라고 제기하였다.

조선인민군에 입대한 그는 가렬처절한 전투의 나날에 진정한 조국과 긍지높은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절감하게 되었다.

이을수 없는 그 시절 그에게 뜻밖에도 그림을 그릴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 부대에서는 연극을 만들어 병사들앞에서 공연할 계획을 세웠는데 무대미술을 맡을

공화국의 품에 안겨 위대한 아버이를 스승으로 모시여



정창모선생

만 한 사람이 없애 풀머리를 앓다가 부대직관원인 그에게 일을 맡겼던것이다.

홍로란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우들을 위훈으로 불러일으킬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는 전투의 열참마다 심혈을 기울이며 붓을 놀렸다.

그렇게 완성된 무대배경그림은 전사들의 대접찬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부대에서는 그를 당당한 미술가로 인정하였다.

전후에 그는 《홍산골전투》라는 제목의 미술작품을 형성하여 리단전람회에서 1등상도 받았다.

1957년 9월 정창모는 미술대학 전분부 조선휘화(당시) 2학년에 편입하였다.

이때부터 정창모의 미술전문공부가 시작되었다.

정창모는 《더 진실하게, 더 훌륭하게, 더 독특하게, 더 아름답게!》라는 엄격한 창작적요구를 세우고 불타는 열정과 사색을 더해 미술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나갔다.

그가 지금도 사람들 기억속에 남아있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을 조선휘화로 훌륭히 형성해낸 이름난 미술가들중의 한사람이기때문이다.

치있게 그려져 친근감을 줄뿐 아니라 커다란 미적정서를 불러일으킨 작품은 당시 미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첫출발을 빛나게 장식한 그는 1966년에 조선휘화 《북만의 봄》을 세상에 내놓아 또다시 미술계를 감동시켰다.

이 작품은 이전 쏘련과 뽤스카에서 진행된 미술전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의 절찬과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 더더욱 갈마드는것은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월단선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따듯히 품어주고 공부시켜주고 자신마저 포기했던 희망을 품으며 꽃피워준 은혜로운 아버지의 그윽한 사랑에 대한 고마움! 그의 고마움은 보답의 마음으로 이어져 그의 창작적열정을 불태워주었다.

주체 61(1972)년 9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미술계에서 나라난 편향들을 분석총화하시었다. 뿐만아니라 정창모와 여러 미술가들이 집체로 창작한 《꽃밭》을 보시고는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유화도 물론 그려야 하지만 그보다도 조선휘화를 더 장려하고 많이 그려야 한다고, 미술가들이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조선휘화를 그리며 앞으로 미술작품을 세상에 들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정창모는 이때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조선휘화가로서의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를 꾸리실 위대한 구상을 안시고 만수대창작사

를 내오시고 유능한 창작가들을 망라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정창모는 만수대창작사에 소환되어 새로운 창작적열정을 안고 창조사업을 벌리게 되었다.

그나날 그가 그린 《설맞이》에 오신 수령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시고 그림이 참 좋다고 평가해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정창모와 여러 미술가들이 집체로 창작한 《꽃밭》을 보시고는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이렇듯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걸음걸음 사랑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그는 조선휘화의 권위있는 대가로 성장하였다.

정창모는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하에 조선휘화 《남반반인민들과 담파하시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농민들의 영농사업을 지도하시어 존경하는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불멸의 영상작품들과 함께 《금강산계곡》, 《백두산》, 《동해의 아침》, 《용평로가 보이는 바다》 등 멋진 풍경화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그의 작품들중에는 《기러기떼》, 《문계선마을》, 《광야의 철새》, 《4.19의 용사들》 등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작품들도 많다.

그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남조선에 있을 때 나는 재능은 있으나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불행이었다. 하지만 나를 세상이 다 아는 인재를 키워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입니다.》

그렇다. 재능과 성공은 참된 삶을 꽃피우는 조국이 있어야 하나로 이어질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좋은 종자도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야 알찬 열매를 맺는다. 내가 미술가로서 성공했다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보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우리 민족의 위대한분을 스승으로 모시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름난 조선휘화가의 한사람이었던 김일성장군인, 인민예술가, 예술학박사였던 정창모가 생의 말년에 남긴 말이다.

정창모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이다.

그는 1931년 12월 가난한 로동자가정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정인성은 표구술에 능하였고 외할아버지 리평렬(호는 효산)은 전라도에서 이름을 날린 서예가, 문인화가였다.

그로서인지 정창모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애착을 가지고 제법 율방자를 틀고앉아 어른들의 그림시중을 들어주었고 때로는 자기의 팔뚝보다 더 긴 붓을 들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며 제일 기뻐한것은 외할아버지였다. 어린 그에게서 미술가로서의 싹을 보았던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순간, 귀여운 외손자를 장차 이름난 미술가로 키우고싶었으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난을 밥먹듯 하며 살아가는 처지에서 《교과화가》의 앞날을 기약한다는것은 그림속의 떡이나 같았다.

날이 갈수록 어린 소년의 손에서 붓과 종이는 점점 멀어졌다.

나라가 해방된 후에도 정창모는 저도 모르게 끌려드는

미술의 세계에 빠져들고있었지만 또 다른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 시름하는 남녘동포들의 처지를 보며 미술가가 되려는 꿈을 부채쩍듯 하지 않았던 안이었다.

그는 리승만연도의 반인민적정정치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형의 영향을 받아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나날 정창모는 자기의 꿈을 지키려 할수록 온 제도가 없이는 설사 미술을 배워도 해도 진정한 미술가로서의 삶을 누릴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고계시는 북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창모는 근로하는 인민이 정권의 주인이 되고 누구나 새 생활의 환희에 잠겨 생활하고있는 공화국을 몸시 동경하였다.

1950년 6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반공격하는 인민군대에 의해 전주가 해방되자 그는 제일먼저 인민군대에 찾아가 자기에게도 일을 맡겨달라고 제기하였다.

조선인민군에 입대한 그는 가렬처절한 전투의 나날에 진정한 조국과 긍지높은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절감하게 되었다.

이을수 없는 그 시절 그에게 뜻밖에도 그림을 그릴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 부대에서는 연극을 만들어 병사들앞에서 공연할 계획을 세웠는데 무대미술을 맡을

만 한 사람이 없애 풀머리를 앓다가 부대직관원인 그에게 일을 맡겼던것이다.

홍로란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우들을 위훈으로 불러일으킬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는 전투의 열참마다 심혈을 기울이며 붓을 놀렸다.

그렇게 완성된 무대배경그림은 전사들의 대접찬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부대에서는 그를 당당한 미술가로 인정하였다.

전후에 그는 《홍산골전투》라는 제목의 미술작품을 형성하여 리단전람회에서 1등상도 받았다.

1957년 9월 정창모는 미술대학 전분부 조선휘화(당시) 2학년에 편입하였다.

이때부터 정창모의 미술전문공부가 시작되었다.

정창모는 《더 진실하게, 더 훌륭하게, 더 독특하게, 더 아름답게!》라는 엄격한 창작적요구를 세우고 불타는 열정과 사색을 더해 미술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나갔다.

그가 지금도 사람들 기억속에 남아있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을 조선휘화로 훌륭히 형성해낸 이름난 미술가들중의 한사람이기때문이다.

치있게 그려져 친근감을 줄뿐 아니라 커다란 미적정서를 불러일으킨 작품은 당시 미술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첫출발을 빛나게 장식한 그는 1966년에 조선휘화 《북만의 봄》을 세상에 내놓아 또다시 미술계를 감동시켰다.

이 작품은 이전 쏘련과 뽤스카에서 진행된 미술전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의 절찬과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 더더욱 갈마드는것은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월단선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따듯히 품어주고 공부시켜주고 자신마저 포기했던 희망을 품으며 꽃피워준 은혜로운 아버지의 그윽한 사랑에 대한 고마움! 그의 고마움은 보답의 마음으로 이어져 그의 창작적열정을 불태워주었다.

주체 61(1972)년 9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미술계에서 나라난 편향들을 분석총화하시었다. 뿐만아니라 정창모와 여러 미술가들이 집체로 창작한 《꽃밭》을 보시고는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유화도 물론 그려야 하지만 그보다도 조선휘화를 더 장려하고 많이 그려야 한다고, 미술가들이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조선휘화를 그리며 앞으로 미술작품을 세상에 들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정창모는 이때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조선휘화가로서의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를 꾸리실 위대한 구상을 안시고 만수대창작사

를 내오시고 유능한 창작가들을 망라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이 격동적인 시기에 정창모는 만수대창작사에 소환되어 새로운 창작적열정을 안고 창조사업을 벌리게 되었다.

그나날 그가 그린 《설맞이》에 오신 수령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시고 그림이 참 좋다고 평가해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정창모와 여러 미술가들이 집체로 창작한 《꽃밭》을 보시고는 그림을 참 잘 그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이렇듯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걸음걸음 사랑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그는 조선휘화의 권위있는 대가로 성장하였다.

정창모는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하에 조선휘화 《남반반인민들과 담파하시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농민들의 영농사업을 지도하시어 존경하는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불멸의 영상작품들과 함께 《금강산계곡》, 《백두산》, 《동해의 아침》, 《용평로가 보이는 바다》 등 멋진 풍경화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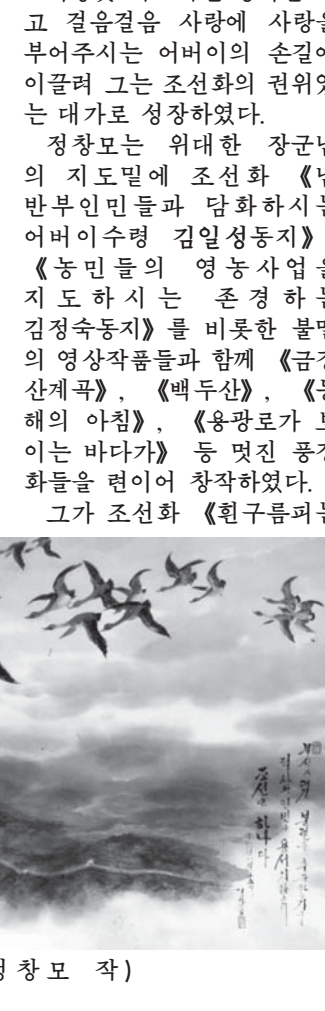
그의 작품들중에는 《기러기떼》, 《문계선마을》, 《광야의 철새》, 《4.19의 용사들》 등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작품들도 많다.

그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남조선에 있을 때 나는 재능은 있으나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불행이었다. 하지만 나를 세상이 다 아는 인재를 키워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입니다.》

그렇다. 재능과 성공은 참된 삶을 꽃피우는 조국이 있어야 하나로 이어질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조선화 《장벽을 넘어오는 철새》 (정창모 작)